



## 목회자로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성도중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피해자와 단독으로 상담하십시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참여하는 부부상담은 종종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학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을 약속해 주세요.
-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말에 마음을 열고 잘 들어 주세요.
- 피해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되 피해자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세요 (예: 교통, Childcare, 현금, 전문기관에 연결하기).
- 한인 가정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을 소개시켜 주세요.
- 무엇보다도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도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신해 결정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 서비스 기관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 해야 할 일

- 공감하고 염려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십시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해자와 접촉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목회자의 소임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 학대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해 주십시오.
-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 지원 기관과 접촉하십시오.
- 예방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외부 지원을 받도록 피해자를 도와주십시오.
- 가해자의 치료조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해서는 안됩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목회자의 대처

교회 안에서 가해자를 상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대화를 하다보면 당황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역시 같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부분입니다. 선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